

“軍 침투 간첩 용의자 50명”

보안당국 메모 파문...군관계자 “北 접근 가능한 장병 의미”

군부에 침투한 ‘간첩 용의자 50여 명’이라고 적힌 군 보안당국의 메모가 지난달 30일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언론은 보도를 통해 군 보안당국이 현재 군부 침투 간첩 용의자를 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군내 간첩 색출을 위해 100여 건의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용의자들은 군 내부에 침투해 현역 간부 포섭과 군사기밀 수집 등 각종 대남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그 수지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원대재 대변인은 “군은 불분분자의 군내 침투를 차단하고 이를 색출하는 방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메모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된 메모에 적힌 ‘간첩 용의자’가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작활동을 하거나 이를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당성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메모에 적힌 용의자라는 표현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업무상 사용하는 용어”라며 “군 침투 간첩 용의자는 친인척 관계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북한이 접근 가능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장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런 장병 중에는 자신이 ‘용의자’로 분류돼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군의 이러한 방첩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매케인, 러닝메이트로 44세 여성 새라 페일린 지명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지난달 29일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 올해 44세 여성인 새라 페일린(시진)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명했다.

이로써 페일린 주지사는 공화당에선 최초로, 미국 전체 역사에선 지난 1984년 민주당 월터 먼데일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제럴딘 페라로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됐다.

이날 7세 생일을 맞이한 매케인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부통령 후보에 페일린 주지사를 지명했음을 공식 발표하고 첫 공동유세를 벌였다.

매케인은 1만5천여명의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나를 가장 잘 도와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정치적 파트너를 선택했다”며 페일린을 소개했다.

군에 입대, 이라크 파견을 앞두고 있는 큰 아들을 제외하고 남편 및 갓난 아이를 포함해 4명의 자녀와 함께 등장한 페일린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선택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엄청난 도전을 가져올 것임을 안다”며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매케인이 러닝메이트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보다 3살 어린 현직 여성 주지사를 선택한 것은 여성표와 젊은 층 유권자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후보 수락 연설 畵大 사상 최다 4천만명 시청

미국 민주당 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시청한 사람이 4천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돼 전당대회 사상 가장 인기있는 TV 이벤트로 기록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TV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미디어 리서치는 ABC와 CBS, NBC, CNN, 폭스뉴스 등 10개 민영방송이 생중계한 오바마의 후보 수락연설 시청자가 3천84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닐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PBS도 오바마의 연설을 TV로 중계했으며 방송을 통해 400만명이 추가로 시청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시청자 수는 2008 베이징올림

픽 개막식의 시청자보다 많은 뿐더러 신인 연예인 발골 TV쇼인 ‘아메리칸 아이돌’ 최종전과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청자수를 넘는 기록이다.

지난달 25일부터 4일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평균 2천250만 가구에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닐슨이 1960년부터 시청률 조사를 시작한 이래 민주와 공화당을 통틀어 전당대회 시청 가구수는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 1976년 제럴드 포드가 로널드 레이건 후보를 누르고 대선후보로 지명됐던 공화당 전당대회 때는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평균 2천190만 가구가 TV를 시청했다. /연합뉴스

태국 푸켓공항 정상화

반정부 시위대 점거 풀어...한국인 관광객 500여명 귀국

태국 반정부 시위로 폐쇄됐던 푸켓 국제공항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500여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대가 푸켓 공항의 주차장과 활주로를 점거함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 500여명의 발이 묶여 있으나, 이날 오후 1시 30분 공항이 정상화돼 오후 5시 스카이스타 2대로 400여명이 귀국했으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나머지 관광객들도 1일까지 돌아올 예정이다. 또한 방콕공항에서도 지난달 31일 오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250여명이 귀국했다.

푸켓-인천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매일, 대한항공이 주 4회, 스카이스타가 주 6회 운항하

고 있으며 푸켓-부산 노선은 스카이스타가 주 2회씩 운항하고 있지만 반정부 시위로 그동안 결항했었다.

그동안 여행사들은 푸켓공항 폐쇄로 귀국치 못한 한국인 관광객 500여명을 현지 호텔에 대기시키면서 여행 일정이 남은 관광객들은 푸어를 예정대로 진행해왔다.

한편 이번 푸켓 공항 폐쇄 기간에 한국에서 태국을 방문하려던 국내 관광객 수천명이 예약을 취소함에 따라 국내 여행사들로서는 비용 부담만 늘게 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요세 가족이나 여행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푸켓 공항 폐쇄 사태까지 일어나 여행사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강력한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미국 본토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강제 대피령’이 내려 뉴올리언스를 떠나려는 시민들이 버스나 열차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北 초등학교 이달부터 컴퓨터·영어 교육

북한이 이달부터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컴퓨터와 영어 수업 준비가 끝났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맹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신문은 “올해 1월부터 교육성 주관 하에 전국(북한)의 소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영어에 대한 교육강습이 수차례 걸쳐 진행”됐고 소학교 3학년용 컴퓨터, 영어 교과서가 편찬됐으며 각 학교에 컴퓨터 학습실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평양 서흥소학교는 컴퓨터 기초교육을 위한 “평양시 본보기 단위”로 지정됐는데 학교에서는 컴퓨터와 함께 “종합사무처리프로그램”, “민속유형집 프로그램”, “타자능력 양성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준비했다. 학교는 또 “부영기와 녹화기, 환풍기 등 직관(영상)교육 설비도 마련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中 쓰촨성 규모 6.1 지진 22명 사망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신화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쓰촨성 남쪽 판중화시에서 동남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쓰촨성에서 17명, 이 곳과 인접한 윈난성에서 5명으로 집계됐고 부상자는 대부분 쓰촨성에서 발생했다.

판중화시는 쓰촨성과 인접한 윈난성의 성도 쿤밍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이다.

이번 지진으로 쓰촨성 판중화시 런허구와 후이리현 등에서 진 1점 여체를 무너졌고 400여채가 벽에 금이 발생하는 등 크게 훼손됐으며 윈난성에서는 웅런, 위안먼우, 우딩, 다오호현 등 4개현이 집중적인 재난을 당했다. /연합뉴스

美 ‘카트리나 악몽’ 재연 우려

강력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미 본토 상륙이 임박하면서 3년전 ‘카트리나’ 피해의 악몽이 재 가시지 않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시(시) 등에 비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현재 4등급에 불과했지만 루비카를 지나며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 기상당국의 관측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심 풍속이 시속 780km에 이르는 구스

타브는 루비카를 지나 미시시피 남동부 쪽을 향해 시속 24km로 진행중이며 1일 미 해안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스타브의 이동경로였던 도미니카공화국과 자메이카에선 이미 홍수 등 피해로 8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05년 카트리나로 1천600명 이상이 희생된 뉴올리언스 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강제대피령’을 발동하고 노약

자 3만명을 우선 대피시키는 등 비상경계에 돌입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번 허리케인이 카트리나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며 100만명 내외의 피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카트리나의 피해를 특별히 났던 석유사들도 해안시설을 통해 이뤄지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각각 75%, 40% 이상 중단한 채 허리케인 접근에 대비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2005년 카트리나 참사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능력대처로 비난을 받은 만큼 전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카트리나의 악몽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당측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트리나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후 부시 행정부의 인기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숙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주】옥션코리아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근린주택/상가)

지역	소재지	대/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정동	560/2539	1421400원	798200원	역대최저가
	금곡동	215/498	429200원	294200원	역대최저가
	유수동	201/713	91만	197200원	역대최저가
북구	유동동	456/777	895900원	591800원	역대최저가
	유동동	419/650	947000원	594300원	역대최저가
	산전동	201/295	291800원	191200원	역대최저가
남구	중흥동	197/647	1474000원	829700원	역대최저가
	대동동	524/919	398900원	196000원	역대최저가
	남평동	833/298	292400원	192500원	역대최저가
동구	산전동	1859/2732	1828000원	1095500원	역대최저가
	유수동	1869/635	292900원	194000원	역대최저가

◆다기주(원룸)

지역	소재지	대/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정동	206/491	429200원	298000원	역대최저가
	동구	218/298	394000원	312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365/351	494000원	392000원	역대최저가
북구	유동동	167/346	294000원	197000원	역대최저가
	유동동	341/481	395000원	195000원	역대최저가
	유동동	159/281	291000원	192000원	역대최저가

◆숙박시설(모텔)

지역	소재지	대/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구	회정동	2616/579	1124000원	592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2042/646	1894000원	1194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3430/628	1161만	814000원	역대최저가
북구	회정동	736/292	2228000원	1598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533/171	1628000원	582700원	역대최저가

◆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대/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남구	회정동	158.5	2970000원	192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39.8	400000원	190000원	역대최저가
	북구	산전동	38	290000원	170000원
서구	회정동	39.5	530000원	37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69.3	950000원	530000원	역대최저가

◆주택

지역	소재지	대/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회정동	528/152	488000원	327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663/112	400000원	28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112/39	989000원	784000원	역대최저가
남구	회정동	453/152	653000원	457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175/72	830000원	587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197/71	1920000원	720000원	역대최저가
북구	회정동	134/144	967000원	88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189/93	977000원	35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150/141	389000원	326000원	역대최저가
동구	회정동	196/156	475000원	380000원	역대최저가

◆아파트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	감평가	최저가
동구	회정동	송림	165	940000원	686000원
	회정동	간성	165	1920000원	714000원
	회정동	서해	69	440000원	380000원
북구	회정동	유수동	72	650000원	455000원
	회정동	대동동	109	900000원	630000원
	회정동	유수동	69	600000원	420000원
서구	회정동	대동동	109	850000원	680000원
	회정동	대동동	109	850000원	680000원
	회정동	대동동	115	1940000원	980000원

◆공장

지역	소재지	대/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회정동	3522/458	2920000원	197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4599/499	3192000원	2155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7307/1469	2928000원	1729000원	역대최저가
남구	회정동	883/671	4910000원	294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8332/2208	119만	797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2127/1332	44만	2940000원	역대최저가
서구	회정동	1885/4105	19470000원	594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2840/1549	3980000원	298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982/701	880000원	340000원	역대최저가
남구	회정동	315/764	7940000원	191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3002	600000원	42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5481	770000원	530000원	역대최저가

◆다세대(빌라)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	감평가	최저가
동구	회정동	송림	129	110000원	73000원
	회정동	간성	347	830000원	580000원
	회정동	대동동	1098	2920000원	1970000원
북구	회정동	유수동	5164	2940000원	1980000원
	회정동	유수동	1398	2940000원	1980000원
	회정동	유수동	11263	1980000원	980000원
남구	회정동	유수동	842	630000원	580000원
	회정동	유수동	3002	600000원	420000원
	회정동	유수동	5481	770000원	530000원
서구	회정동	유수동	2073	4980000원	2920000원
	회정동	유수동	3621	8970000원	3980000원
	회정동	유수동	3298	3920000원	2980000원
북구	회정동	유수동	2403	7920000원	4920000원
	회정동	유수동	672	7940000원	4940000원
	회정동	유수동	695	4940000원	2920000원

◆농가편의시설

지역	소재지	대/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남구	회정동	806/323	480000원	17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2446/1338	2940000원	197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1532/837	611000원	430000원	역대최저가
동구	회정동	1264/236	610000원	340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4210/1829	33만	1920000원	역대최저가

◆기타

지역	소재지	대/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동구	회정동	889/354	1988000원	954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5134/435	19494000원	19494000원	역대최저가
	회정동	1577/698	19979000원	19213000원	역대최저가

대인동삼일부동산
 ☎(722)22-1140, 5210-01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문동 대인동 소재사건리엔)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얼은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건물임대

오남북면의 신도시 1일 용동인구 30만명 모이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점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점점점포보도복록 300㎡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대문의 016-611-3424, 011-625-0510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062-374-2880 · 010-9115-4487 위치: 화정동 세무사리

수익성 최고 원룸, 전, 담 | **수익성 최고 상가, 주택 상가건물**

- 서구 용암동/대지 210㎡/4F/원룸/보통금 8800만 원/월440만원
- 서구 회정동/대지 350㎡/건 평1320㎡/17억/보통금 4억/월900만원
- 서구 금호동/대지 230㎡/3F/안진/보통금 3천/월 200만원
- 서구 용암동/대지 221㎡/단층건평66㎡/매거억
- 서구 용암동/대지 160㎡/구한옥1동/매거7천
- 서구 용암동/대지 350㎡/2F/건평165㎡/매거2억6천5백만원
- 서구 용암동/대지 160㎡/구한옥1동/매거7천
- 서구 용암동/대지 859㎡/매거4억6천800만원
- 서구 용암동/대지 1123㎡/건평 198㎡/6억5천
- 서구 세하동/도로점전/2642㎡/5억6천6천만원
- 서구 용암동/대지/600㎡/건물1동/매거1억7천만원
- 서구 용암동/대지 480㎡/구한옥1동/매거1억2천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건물 수시접수합니다.

※ 불안한 월가상승 투자할 곳은 부동산 뿐입니다 ※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단기간에 최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지면장 전체 게재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전월 납입식
 대동18/2159
 감평가1억4000만
 최저가1698000만
 지리산호텔

회정동
 대동60/212338
 감평가1억41400만
 최저가1798300만
 사무나, 레스토랑

여수시물산동
 대동585/21807
 감평가1억5000만
 최저가1698300만
 비 레스토랑

충장로2가
 대동197/21847
 감평가1억47000만
 최저가1892700만
 상가, 사무실

나주남평동
 대동33/21268
 감평가1억24400만
 최저가125500만
 음식점, 레스토랑

대동18/21396
 감평가1억8000만
 최저가12000만
 원룸/가정용구역